

'잠긴셋방 어린이 참사' 다시는 없도록 '세쌍둥이 탁아소' 문연다

지난 3월말 부모가 임시 천막 집을 짓기 위해 집을 비운 새 산비탈 허름한 셋집 안방에서 불장난하다 화재로 숨진 인천 남구 동춘동 세쌍둥이와 같은 비극이 더이상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추진해온 '세쌍둥이 탁아소'가 오는 17일 문을 연다.

일요화제

인천지역 탁아위원회·여성노동자회·공부방연합회·민중교회연합·전교조 인천지부 등 인천지역 단체들과 뜻을 같이한 시민들이 참여해 세쌍둥이가 숨진 지 7개월여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들 단체와 시민들은 인천시 남구 용현동 473-1 용현시장 맞은편 감내과건물 3층에 32평 크기의 공간을 마련한 뒤 개소를 앞두고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느라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탁아소건립추진위 임정숙(34·



세쌍둥이 탁아소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2일 오후 인천시 북구 부평1동성당 앞에서 전교조 인천지부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시민·학생들을 상대로 열려 큰 호응을 받았다.

〈인천=변재성 기자〉

인천 시민·단체 뜻모아 30평 동지 마련 3살 미만 맞벌이·빈민층 자녀 돌보기로

여)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단체 회원·가정주부 등 10여명은 2일 오후 4시 인천시 북구 부평1동성당에서 전교조 인천지부가 주최한 '교사·학부모·학생을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행사에 찾아온 관람객을 상대로 '세쌍둥이 탁아소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티셔츠·볼펜 등 전교조 물품과 주변에서 팔아서 기금에 보태라고 보내온 바구니·치마 등 20여종의 물품을 행사장입구에 진열, 판매해 큰 호응을 받았다.

바자회에 나온 세쌍둥이 어머니 최연호(30)씨는 "없는 사람들을 위한 탁아소가 빨리 들어서 가난 때문에 더이상 애들을 죽게 하지 말아야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처럼 단체 및 시민들이 '세쌍둥이 탁아소' 건립 추진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 3월30일 남구

동춘동 산기슭에 지어진 4평 정도의 허름한 슬레이트집에 세들어 살던 심철구(37)씨 집 방에서 부모들이 집을 비운 새 불장난하다 불이나 심씨의 5살배기 아들 태식·재식·강식군 등 세쌍둥이가 한꺼번에 숨진 사실이 보도(〈한겨레신문〉 4월1일자 15면)되면서 비롯됐다.

아버지 심씨는 6년 전 이 마을로 이사와 마을회관 등을 전전하며 모은 돈으로 보증금 1백50만원에 사글세를 월 5만원씩 주기로 하고 보증지리를 마련했으나 용접일을 해 버는 돈 30만~40만원으로는 월세와 생활비 등을 떼고 나면 아이들 양육비가 모자라 먹이던 우유마저 끊어야 하는 궁핍한 생활에 허덕였다.

이 때문에 어머니 최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는 물가로 갈수록 생계가 어려워지자 방세 보증금을 빼

내 생활비에 보태쓰고 매달 내야 하는 월세 5만원을 아껴 아이들 양육비에 쓰려고 집 근처 야산에 임시로 살 천막집을 짓기 위해 터닥기작업을 하려고 아이들을 방 안에 둔 채 밖에서 문고리를 잠그고 나간 사이에 불이 나 아이들을 잃는 참변을 겪었다.

이들 단체들은 "이 마을에 아이들이 많지만 탁아소가 없었다면 우리 세 아이들을 잃지 않았을텐데..."라는 어머니 최씨의 뼈아픈 절규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탁아소 건립에 발벗고 나섰다.

이어 세쌍둥이의 넋을 기리는 탁아소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표들이 달마다 2회씩 모임을 가지며 탁아소 설립 추진에 따른 홍보물을 만들어 세쌍둥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며 각계에 참여를 호소했다. 지난 4월28일에는 주안 중앙성결교회에서 시민 2백여명이 참

석한 자리에서 세쌍둥이 넋을 기리는 추모제를 갖기도 했다.

이들 단체·시민들은 또 다른 단체가 여는 행사장을 쫓아다니며 바자회 등을 열어 자금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월엔 그동안 지역탁아소를 찾아다니며 무료 진료를 해준, 감내과를 운영하는 의사 김정아(32·여)씨로부터 병원 3층에 있는 32평 크기의 공간을 3년 동안 무료로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오는 17일 문을 열게 되는 '세쌍둥이 탁아소'는 만 3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맞벌이·빈민가정 자녀를 상대로 아주싼 수탁비를 받아 운영하게 된다. 내년 2월부터는 비영리탁아소모임 단체인 지역탁아위원회 소속 전국 1백여개 탁아소 가운데 처음으로 1주일 내내 아이들을 맡는 주탁아제도 시도할 계획이다.

〈인천=김영환 기자〉